

생필품 '아트 마케팅' 바람

고흐 '측백나무...'에어컨·클립트 '여자 친구들' 비누...

“우리집엔 ‘명화’ 있다”



고흐의 '측백나무...' 그림이 이용 된 LG전자 벽걸이 에어컨

기업들이 앞다퉈 아트 마케팅(Art marketing)을 도입하면서 명작들이 갤러리를 벗어나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아트 마케팅은 명화들을 제품 디자인에 적용하거나 기업 이미지 광고에 활용함으로써 브랜드를 고급화하고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기업 전략.

최근 아트 마케팅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고흐, 구스타프 클림트, 앤디 워홀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가전 제품, 의류, 생활용품에까지 빠르게 응용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고흐의 '측백나무...'는 LG전자의 벽걸이 에어컨의 전면 패널에 부착돼 안방을 찾고 있다.

'측백나무...'는 노란 색조를 띤 밀밭의 평화로움과 하늘의 구름이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작품으로, 고흐 자신이 "내가 그린 가장 명석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던 명작이다.

또 몬드리안의 작품 '구성2'도 지난 2003년 같은 회사의 에어컨으로 출시되기도 했다.

지난해 회화사상 최고액(1천297억원)에 팔린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을 그린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은 예경의 브랜드 이미지로 쓰이고 있다.

비누에 적용된 클림트의 작품은 '여자 친구들' '부채를 든 여인', 이를 작품은 포장지 인쇄는 물론 비누 자체에도 부조로 새겨졌다.

클림트의 대표작인 '키스'는 현대카드 디자인에 응용돼 패션 소품으로 사랑받고 있다.

팝아티스트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앤디워홀의 작품은 토텔 브랜드인 쌈지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팝아티스트 낸시랭의 대표작인 '타부 요기니'가 새겨진 T셔츠를 출품했던 쌈지는 올해 앤디 워홀의 '플라워 시리즈' 등을 디자인

인 삶으로 개발했다.

서양화가 심명보씨의 작품 '페션 포 뉴 밀레니엄'은 해태제과의 초코 케이크의 포장디자인으로 채택돼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LG패션은 지난해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인 플라잉시티 등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새겨진 일러스트 티셔츠를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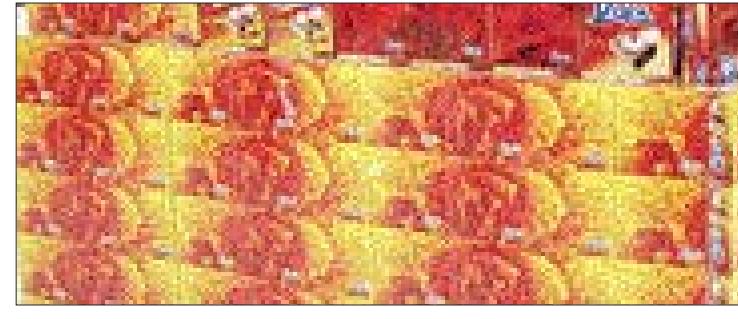
광주의 조명기기 생산업체인 대방포스텍은 지난 3월 국내 조명업체 처음으로 패션 디자인 앤드레 김 특유의 문양을 조명제품에 도입하기로 했다. 대방포스텍은 오는 9월 'ANDRE-KIM Light'를 국내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같은 추세에 대해 미술평론가 이주현씨는 "미술을 통해서 기업과 상품을 홍보하는 상업적인 측면도 있으나, 소비자들이 미술을 친근하게 느끼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을 브랜드 이미지로 사용한 예경의 비누.



해태제과 초코 케이크 포장에 사용된 심명보씨의 '페션 포 뉴 밀레니엄'.

오페라로 즐거운 논술 공부

논술교육전문업체, 11일 '친절한 오페라-라 보엠' 공연

'오페라로 논술 공부를 한다?'

딱딱하게 느껴지는 논술을 예술과 접목시킨 이색 공연이 열린다. 논술교육전문업체 '지혜의 숲' '초암아카데미' 등이 마련한 '친절한 오페라-라 보엠' 공연이 오는 11일 오후7시30분 광주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린다.

서울과 대구 공연에 이어 광주를 찾는 '친절한 오페라-라 보엠'은 오페라 전문 지휘자인 채지은씨가 오페라의 시대적 배경, 감춰진 이야기들에 대한 해설을 곁들이고 애니메이션 등을 접목시켜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한 작품이다.

관람자들은 19세기 유럽 시민사회가 왜 오페라

에 열광했는지, 혁명의 물결과 자본의 성장이 훼재했던 19세기 등장인물들이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논술 주제에 대해 작품을 보며 느끼고, 생각하고, 이야기해보게 된다.

푸치니의 대표작인 '라 보엠'은 19세기 파리를 배경으로 4명의 예술가들이 사랑과 우정을 그린 작품으로 '그대의 찬송', '내 이름은 미미' 등의 음악이 유명하다. 출연자는 이지현·임정현·김선자·노선자씨 등.

문화와 예술을 접목시킨 논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지혜의 숲'은 겨울방학 기간중에는 과학과 문화를 접목시킨 '과학 콘서트'를 열 계획이다. 문의 062-523-7830.

광주문화아카데미 담시여행

11~12일 보성군 강골민속마을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회장 박혜강)는 제9기 광주문화아카데미 특별프로그램으로 문화답사여행을 마련했다.

'우리 마을의 역사 아래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오는 11~12일 이를 동안 보성군 드라마 향길 전통 민속마을에서 펼쳐지는 이번 답사는 훼손되지 않은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 북구와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 강골마을 등이 함께하는 '강골마을 지킴이' 결연식도

준비돼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성인 4만원·청소년 2만원이다. 문의 062-523-7830.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11~12일 보성군 강골민속마을

‘토테미즘’ 고대로의 시간 여행

임병중 판화전 9~15일까지 신세계갤러리

원시신앙인 '토테미즘(Totemism)'을 현대적 의미로 읽어내고 있는 판화가 임병중씨가 9~15일까지 광주신세계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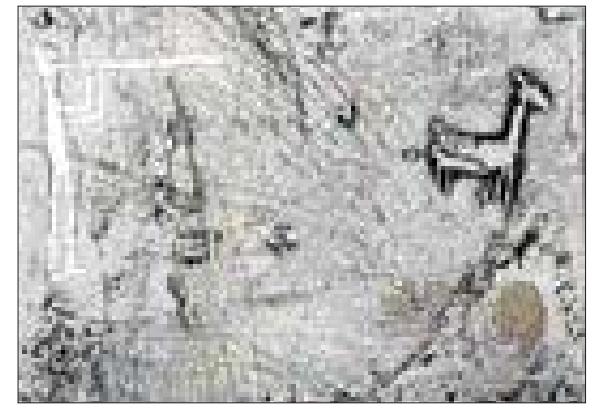
임씨는 '토테미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선사시대 암각화와 고대 벽화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재료와 소재 등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재료의 한계 때문에 대부분 소품에 머물고 있는 목판화의 한계를 벗어나 200~300호에 달하는 대형 작품도 출품했다.

전통재료인 목판을 고집하는 작가는 나무판에 실리콘을 덧칠한 뒤 나이프로 이미지를 새겨넣은 기법을 통해 기존 판화에서 느낄 수 없는 유화의 다양한 질감을 구현하고 있다.

안료에서도 작품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 흙을 추가함으로써 고대 벽화에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의 흐름'을 재현했다.

고대인들이 주술적인 의미로 벽화를 그렸듯이 그는 현시대의 부조리와 폭력성 때문에 사라져가는 생명과 자연이 회생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작품에 담고 있다.

선사시대 벽화에서 작품의 모티프를 따온 작가는 '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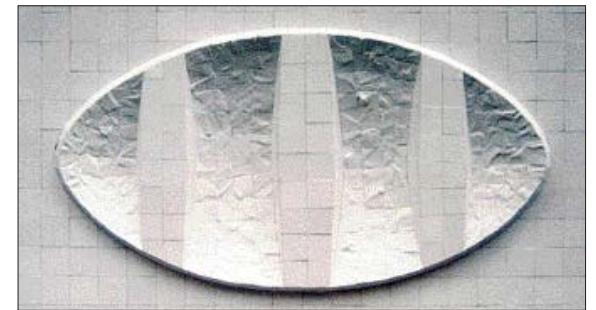
'토테미즘'

'고깃배와 노젓는 사람들', '삼족오' 등의 고대 벽화 이미지를 통해 작품을 풀어낸다.

김승환 조선대 미대교수는 "그의 작품은 주술을 통해 현대인의 원초적인 감각을 깨우고 고대로의 시간 여행을 가능케 한다"고 말했다.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뒤 무등미술대전 대상, 단원미술대전 특상 등을 수상했으며 지난 갤러리 실장을 맡고 있다. 문의 062-360-1630.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어린이 놀이터'

‘멈춤’ 현대인들의 휴식

진양진 조각전 13일까지 무등갤러리

조각 전시회가 7~13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진씨는 석고 조각을 부조형식으로 불인 작품들을 통한 '멈춤'을 읽어버린 현대인들에게 휴식의 의미를 일깨워 준다.

'어린이 놀이터'는 60개 조각을 불여 화면을 만든 뒤 다시 입체적인 석고조각을 부착한 작품으로, 관람객들에게 깊은 명상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휴식의 형식'과 '휴식의 형태' '본성적 휴식'은 육체적, 정신적인 휴식 등 다양한 '쉼'의 방법들을 제시하는 작품이다.

조선대 미술대학을 거쳐 독일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대학을 졸업한 뒤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전남도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으며 조선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236-2520.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전통문화회 얼쑤의 북놀이'

얼쑤 신명난 국악 한마당

8일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 수요 열린무대

전통문화회 일쑤(대표 김양균)가 광주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이 마련한 수요 열린 국악 한마당 무대에 선다. 무료 공연.

8일 오후 7시 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열쑤는 북놀이 '질주', 얹은반 사물놀이, 가야금 병창 '남누리, 북누리', 호남우도 풍물굿 등 신명난 우리 음악을 선보인다.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우리 문화 지키기에 앞장 서온 열쑤는 국악공연 뿐 아니라 도예·염색·생태체험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다.

오는 12월말까지 수요 열린 국악한마당을 진행하는 전수

관은 22일에는 다스름 국악예술단, 29일에는 창작국악 내연단 '도드리'를 초청, 신명난 무대를 연출할 예정이다.

지난 2002년 문을 연 전수관은 매주 목요일에도 상설국악공연을 열고 있으며 국악기 전시실 등도 갖추고 있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무료주차 3시간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1408 (15세) 2관 헤리포터 (12세) 3관 화려한 휴가 (12세) 4관 디워 (12세) 5관 라띠부이 (전체) 6관 디워 (12세) 7관 트랜스포머 (12세) 8관 트랜스포머 (12세) 9관 디워 (12세) 10관 화려한 휴가 (12세)

*호남 최대 주차장 6대입실이 상영합니다 1588-7941

1관 1408 (15세) 2관 헤리포터 (12세) 3관 화려한 휴가 (12세) 4관 디워 (12세) 5관 디워 (12세) 6관 디워 (12세) 7관 트랜스포머 (12세) 8관 디워 (12세) 9관 화려한 휴가 (12세)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밀리스 회원만을 위한 전용창구 마련

*전화예약 가능

*주말에도 티켓 사용 가능

1588-9101

제일시네마 출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화려한 휴가 (12세) 2관 화려한 휴가 (12세) 3관 디워 (15세) / 헤리포터 5 (전체) 4관 디워 (12세) 5관 디워 (12세) 6관 디워 (12세) 7관 트랜스포머 (12세) 8관 디워 (15세) / 디워 (15세) 9관 화려한 휴가 (12세)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새무소 및 호남티워크주차장) 227-1960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게 한정

전통문화회 얼쑤의 북놀이 '질주'

관은 22일에는 다스름 국악예술단, 29일에는 창작국악 내연단 '도드리'를 초청, 신명난 무대를 연출할 예정이다.

지난 2002년 문을 연 전수관은 매주 목요일에도 상설국악공연을 열고 있으며 국악기 전시실 등도 갖추고 있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